알록달록 빛나는 6학년 3반

6학년 3반 정원재 선생님과 친구들



<정원재 선생님이 6-3에게 보내는 편지>

1. 자신의 색(color)을 잃지 말고, 자신만의 색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 자신을 사랑하고 , 자신을 속이지 말며, 자신을 아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한다.

3.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학생들의 장래희망과 좌우명

번호	성명	장래희망	좌우명
1	김현우	가수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2	노시우	역사선생님	옷은 빨리빨리 배달하자
3	안병민	연예인	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	오유근	초등학교 선생님	포기하지말고 열심히 하자
5	원남경	요리사	노력하자
6	윤진영	수의사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7	이승민	바리스타	건강하게 오래 살자
8	이호상	음악심리치료사	지금 멈추면 평생 멈춘 것이다.
9	정윤재	경찰	행복하게 살자
10	최민관	소설작가	내 마음을 숨기지 말자
11	최찬솔	국가대표	포기하지말자
12	한찬희	의사	외모를 소중히 여기자
13	강수정	BJ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14	고서영	엔지니어	너, 나 그리고 우리
15	김해민	연예인(가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자
16	민수아	연예인(가수)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17	민은지	회사원	열심히 일하자
18	신다은	의사	열심히 살자
19	신희원	프로그래머	고급지게 살자
20	안윤서	CEO	돈을 많이 모으자
21	이서현	과학자	책은 나의 친구
22	최명진	프로게이머	꿈을 향해 나아가라
23	홍선	웹툰작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자

우리들의 이야기

<논설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맙시다-

김현우

요즘들어 쓰레기를 땅이나 공공장소에 버리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상황이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땅에 버려지게 되면 기분이 매우 매우 불쾌하다. 공공장소가 더러우면 기분 좋게 놀러오거나,걸어다닐때 쓰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불쾌하다.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른 벌금을 내거나, 선행하여 남이버린 쓰레기도 주워서 버렸으면 좋겠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노시우

즈음 웬만한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일은 게임 , SNS , 카카오톡 , YouTobe 등을 하며 즐거움을 느껴 스마트폰 중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어른들이 막고 , 압수를 하는 행위는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더 하고싶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이 막든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거나 ,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가지면 중독을 많이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취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는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수있을 것입니다. 또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족은 화목해질 수 있을것입니다

-불법투기를 하지말자-

안병민

요즈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장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쓰레기들 때문에 환경문제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첫째,분리수거를 하자.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되어 유용하게 쓰일수있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즐 수 있습니다.
둘째,불법투기를 하지 말자.불법투기를 하면 환경 오염이 생기고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오유근

요즘, 쓰레기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경우를 흔히 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나 하나 쯤이야' 하면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되서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쓰레기는 잘 썩지도 않아서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합니다. 왜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길에 쓰레기들이 없어지고,
쓰레기 냄새도 훨씬 줄어들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훨씬 깨끗해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지말아야 합니다

-종이책의 밝은미래-

원남경

어느 학자의 말이다. 그는 종이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며, 종이 신문도 5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
하였다. 하지만 종이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앞으로도 종이책을 사는 사람은 계
속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종이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전자책은 계속 보고있으면 눈이
아프지만 종이책은 눈의 피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종이책을 읽던 사람들은 전자책 보다 종이책이 더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이책을 계속 살것이다. 그리고 전차책보다 종이책이 더 집중이잘되고 기억에도 전자책 보다 종이책이 더 오래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종이책을 계속사는 것 같다.

-쓰레기 무단투기-

윤진영

요즘은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낸다. 그게 아까워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피해가 많아졌다.그럼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알아보자.

첫째,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거리가 지저분해진다.거리가 지저분해지면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쾌해진다.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여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진다.
둘째,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사람들이 사는 주택,아파트 등 그 근처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생활이 불편에지고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수도 있다.
셋째,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바다 생물들이 죽는일이 생긴다. 실제로 비닐봉지와 같은 질긴 것을 먹고 죽는 바다 생물들이 많다. 그리고 쓰레기에 오염된 바다에서는 악취가 나고 환경이 안 좋아져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근거를 들어 나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위기-

이승민

요즈음 우리나라는 정치쪽 상황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대통령과 최순실때문에 참았던 울분이 터진것이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지만 대국민사과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촛불시위는 2002년 효순이와 미순이 사건이후 처음인것 같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나라에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있다.
이런것도 나라인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다시뽑자. 그렇게하면 조금나라의 안정이 되고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하거나 탄핵시키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다시 국민의 손으로 뽑자.

<시>

-우리나라 대통령-

이호상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
촛불을 들고
하야하라
하야하라
모든 사람들이
외친다
촛불을 들고
하야하라
하랴하라

다함께 외치자
하야하라
하야하라

- 현실-

정윤재

현실은 그렇다
지금이 바로
그 현실이다
그만큼 믿기지 않은
현실
국민이 현실이길
바라지 않는
그 현실
그래서 이불밖은
위험하다
하야 순시려
하야 순시려

-비-

최민관

비가온다
샤워기 물을튼 것처럼 비가온다
비가우산을 씌겨준다.
우산이 없으면 내몸을 씌겨준다
필요없는데

-민들레-

최찬솔

민들레씨를 심으면
노란 꽃이피어난다
꽃이피고나면 하얀 솜털이 생겨나지
그솜털은 바람이 부는대로
날아가지
너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기사문>

-교내 수학경시대회-

한찬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금천초등학교에서 11월22일에 교내 수학경시대회를 한다고 한다.
직접 각 학년에 선생님들이 학년수준에 맞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참여한다고 한다. 이 경시대회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자는 의미가 있다. 언제나 수학만큼은 잘 풀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이다.
이 경시대회를 금천초등학교에서는 1학기2번 2학기2번 총 1년에 4번정도를 하고있다. 잘 본 학생들에겐 상금을줘 성취감을 느낄수있게 하는것이다.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

들이 스스로 공부하는법을 배우는 기회인것 같다.

-금천초등학교의 학습발표회-

강수정

학습발표회는 11월 3일 목요일, 2~5시 까지 의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천초등학교 학습발표회는 강당에서 선생님, 학생, 부모님들 모두가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또, 금천초등학교의 유치원생 부터 6학년, 한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하고, 모두 즐겁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층에서 보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 또 각도에 따라 잘 보이는 곳 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Best 5 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 : (1학년) 검정고무신 - 1학년 학생들이 검정고무신 노래로 재미있게 춤을 추었습니다.
4 : (5학년) 부채춤 - Cheer up- Cheer up 노래에 맞추어 열심히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3 : (6학년) 노래 - 많은학생들이 모여 동요, 전통 노래 등 열심히 불렀습니다.
2 : (6학년) 단소 - 이것도 또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아리랑과 같은 음악을 단소로 불었습니다.
1 : (6학년) 태권도 - 태권도를 배웠던 학생들과 배우고 있는 학생들 모두 열심히 태권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 김연송 기자 - 였습니다.

-금천초등학교 학습발표회-

고서영

지난 2016년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청주 금천초등학교 예지관에서 학습발표회가 열렸다 .
학습발표회가 시작되고 병설유치원생들부터 1 ~ 6학년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 저학년들의 악기연주 , 귀여운 춤과 고학년들의 부채춤 , 태권무 , 단체댄스 등등 여러가지 화려한 무대가 공연되었다 .
많은 무대들 중에서도 6학년들의 태권무 , 저학년들의 뽀로로 주제가로 이루어진 악기연주 무대가 호응을 많이 얻었던 것 같다 . 유치원생들의 귀여운 무대 뒤 , 고학년들의 각 잡힌 멋진 무대 , 6학년 4반과 7반의 아름다운 합창까지 모든 무대가 끝나고 학부모님들이 예지관에서 모두 나

가셨을 때 6학년들이 선생님들을 도와 예지관의 의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학습발표회가 마무리 되었다 .
이번 학습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의 숨은 끼와 매력을 돋보일 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다 .

-졸업평가-

김해민

2017년 12월 6일, 금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각 반에서 학교가 주최하는 졸업평가를 보게 된다. 원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대체 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금천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 관계로 졸업하기 전에 보는 마지막 시험인 졸업평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졸업평가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2바로 각 반에서 1~3등 정도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시험을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이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학습발표회-

민은지

지난 2016년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청주 금천초등학교 학습발표회를 시작하였다.
학습발표회에서는 유치원생들부터 6학년 아이들의 끼를 볼수있는 기회이다.
학습발표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지고 바로 무대가 시작되었다.
학습발표회를 준비한 아이들은 학습발표회에
설레였다. 학습발표회에서는 춤,합창, 영어노래 등등을 볼수있었다.
학습발표회가 끝나자 금천초등학교 아이들은 가족과 좋은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민은지 기자

<이야기 바꿔쓰기>

-수박돌이-

신다은

옛날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빨래를하려고 강에 갔는데 강에서 내려오는, 수박을 보게 되었다.그래서 수박을 잘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를 수박돌이라고 지었다. 같이 살다 보니깐 수박돌이가 사람을 만지면 병이 치료 되는 것을 알게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수박돌이를 가

지고 시장에 가서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었다. 수박돌이는 이렇게 치료 해주는게 싫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 주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부자가 되었다.

-도시에 나타난 수박돌이-

신희원

어느날 한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아주 큰 수박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놀라 큰 수박을 잘라보았어요 그랬더니 큰 남자아기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놀라 그아이를 데리고 근처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은 그 아이의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하였어요.
할머니는 그아이를 수박돌이라고 이름을 짓고, 수박을 주는 아이에게 수박을 많이 사다주었어요.
그런데 수박돌이는 점점 크면클수록 보통아이들보다 무겁고 컸어요.
그리고 활발하기까지 해서 아랫층에서 계속 올라오고, 가끔은 신고까지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수박돌이가 먹는 수박값도 많이들고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수박돌이를 어떤 여성분이 입양을 했지만 그 여성분도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박돌이는 계속해서 고아원에서 지내기로 하였답니다.

-정호와 아빠의 오해-

안윤서

정호는 집에가는길에 친구 창수를 만났습니다.
창수는 "야, 우리집에서 놀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좋아" 정호는 재미있을 생각에 대답하였습니다. "밥먹고 공터에서 만나"
동네 갈림길에서 창수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정호야 너 논좀갔다와야겠다." 아버지가 물을 안가져 가셔서 물 좀 갔다 드리렴" "네, 갔다오겠습니다" 정호는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호를 보자마자 바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호야! 너 왜 이제오니,아빠가목이 말라서 일을 못하고 있잖아!"
"아버지 죄송해요" 정호는 속으로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정호는 창수와노

는걸 포기하고 엄마에게 자초지종 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일이 끝나고 오신 아버지에게 정호가 당한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용돈을 꺼내서 정호에게 주엇습니다 . 정호야 아빠가 오해에서 미안해. 정호와 아버지는 안았습니다.

함께함의지혜

이서현

옛날어느마을에서있었던 일이다 가뭄이들자 마을에는 농사에쓸물이부족하였다
그러서사람들은 큰저수지를만들자고하였다그러나저수지를만드는일은너무큰일이여서 어느누구도 삽을들지못하였다 아무것도없는땅에그렇게큰 못을 어떻게판담?
그러게언제끝날지모르는일인데
마을사람들은하나같이말하였다
그러던어느날 마을의 한젊은이가 저수지를만들자리에막대기를꽂고 마을사람들에게큰소리로말하였다
우리모두 여기 막대기가꽂힌곳을지나갈때 마다 한치씩만땅을파고갑시다
마을사람들은그말을잊고 그막대기가 왜있는지모르고 막대기를 빼서 지팡이로쓰였다
그로부터몇년이지났지만 그곳엔큰저수지가만들어지지못했다 왜냐하면마을사람들이모두이막대기는뭐지?라고하면막대기를빼서 지팡이로썼기때문이였다 그래서사람들은그곳을지나갈때마다그곳을지팡이동이라고 불렀다

<영화 감상문>

최명진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담은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느낀 것을 두가지로 나뉘면 상처와 황당을 준 것 같다. 갑작스런 북한의 침입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 만 같았다. 그리고 전쟁의 끝을 맺어야 할 때 우리는 참혹한 결과 휴전 이란 걸 보여주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전쟁의 상황이니 총, 대포, 칼 등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가장 속상한 것 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들은 전쟁에 참가해야 했었는데 그 것 때문에 가족이 헤어졌다. 그리고 전쟁 탓에 한국인들이 “빨갱이” 라고 오해 받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방심하다가 목숨이 ㅇ벗어진 경우도 있었고, 영화가 끝날 무렵 남한에 있던 장동건이 오해를 받아 북한 군복을 입고 남한군을 공격할 때 동생 원빈이 찾아와 계속 공격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남한군으로서의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의하여 형 장동건을 북

한군이 총을 소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동생의 말 “꼭 살아 돌아와야 해”를 지키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체의 뼈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착하고 예절바른 6학년 4반

6학년 4반 김우미 선생님과 친구들



일 년 간의 생활을 마무리 할 즈음이 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학급 문집을 발간합니다. 글 속에 담긴 소중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곳에 담긴 글들이 훗날 읽었을 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장에 소중한 한 페이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금천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선생님 김우미

내가 만약 ○○○가 된다면?

이름	장래희망	내가 만약 ○○○라면?
강동균	프로그래머	실용적이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밌거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강희찬	우슈선수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사줄 것이다.
김달훈	검찰청 공무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다.
김정용	방송인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김진국	소설가	힘들어도 견뎌내어 해결하는 소설을 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문지민	수의사	아픈 동물들을 살리고 열심히 할 것이다.
박준기	과학자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생활 용품을 만들 것이다.
손승민	아이돌	나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
윤영진	의사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이서준	요리사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주원	군인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다.
장 준	대통령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박도희	사회복지사	장애인이나 북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방시현	스타일리스트	예쁜 옷에 파묻혀 살 것이다.
오수현	사육사	동물들을 정성스럽게 돌볼 것이다.
오은별	선생님	학생들을 가르쳐주며 살고 있을 것이다.
우영제	선생님	아이들을 정성들여 보살피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정옥	가수	열심히 할 것이다.
장지유	의사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를 다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정서현	선생님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생활할 것이다.
천예은	간호사	여러 사람들을 도와 줄 것이다.
한유진	PD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것이다.
황민주	미용사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꾸며줄 것이다.

1년 동안 정든 우리 반 친구들에게

강동균	친구들아, 너희와 좀 더 친해지고 같이 놀고 싶어. 특히 진국이랑 서준이.
강희찬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마웠다.
김달훈	마지막 6학년 생활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김정용	얘들아, 6학년 생활 재미있었고, 재밌게 보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고마웠어.
김진국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함께 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문지민	그동안 고마웠다.
박준기	남은 6학년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손승민	6학년 동안 고마웠고 우리 6학년 4반 잊지 말자.
윤영진	초등학교 때 만나서 즐거웠어. 같은 중이 되면 친하게 지내자.
이서준	1년 동안 즐거웠다.
이주원	고~마~웠~다~
장 준	감사했습니다.
박도희	얘들아. 잘 있고 건강하게 살아. 안녕.
방시현	얘들아 안녕!! 잘 지내~
오수현	나와 친하게 지내주어서 고맙다.
오은별	안녕^^
우영제	얘들아, 안녕! 나 영제야. 겨울방학 잘 보내고 다치지 마. 그럼 안녕♡♡
이정옥	친구들아, 나랑 1년 동안 놀아줘서 고마워~♡♡
장지유	1년 동안 싸우고, 때리고 그랬지만 웃고 즐거운 추억도 있어서 좋았어!! 1년 동안 재밌었어 6-4♡
정서현	중학교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지내자.
천예은	어른이 되어도 잘 지내자ㅋㅋㅋ
한유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친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황민주	얘들아 안녕.

10년 후의 나에게

강동균	너는 단지 행복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자신이 맡은 일은 성실히 하면서 있어주면 좋겠어.
강희찬	안녕 희찬아. 너는 지금 우슈선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그래.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할거지?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열심히 살아. 오래오래 살아.
김달훈	성실하게 살고 후회 없이 살아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에게도 잘 해줘라.
김정용	정용아, 10년 후에도 잘 지내고 있지? 아무 일 없게 잘 지내줬으면 해.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 2027년도에는 어떤지 궁금하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자라줘. 안녕.
김진국	안녕, 10년 후의 진국아? 그쯤이면 넌 아마 꿈을 이루고 있겠지.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 믿어.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너라면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어. 힘내, 10년 후의 진국아!
문지민	안녕. 잘 지내고 있니? 꿈은 이루었어? 잘 지내. 그리고 열심히 하고 꼭 효도해.
박준기	안녕, 10년 후의 나야. 지금 뭘 하고 있니? 잘 지내고 있지? 앞으로도 더 힘내고 설마 아직도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있니? 게임하는 시간을 줄였니? 내 소원은 게임시간 줄이기인데. 아무튼 잘 지내.
손승민	승민아. 너는 지금 꿈을 이루었겠지? 지금 나도 열심히 노력해 10년 후의 너에게 다가갈게. 노력을 한 만큼 성과가 나올거야. 항상 노력하자! 10년 후 너에게 다가갈게!
윤영진	안녕, 10년 후의 나야. 너는 잘 지내고 있겠지. 너는 벌써 23살이네. 군대는 다녀왔니? 너는 잘 버텨왔을거야. 그 동안 힘들었을거야. 그래도 그만큼 효과가 있었겠지. 그래도 잘 버텼어. 잘 있어. 열심히 해.
이서준	10년 후의 나야. 너는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니? 군대는 얼마나 힘들어? 난 너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하다.
이주원	안녕, 10년 후의 나야. 너는 지금쯤 군대에 있겠지? 군대에서 열심히 있다와. 파이팅.
장 준	군대에서 힘들거야. 그래도 버텨. 그리고 무슨 직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업에 만족하며 살 것이고 사회에서는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의 나에게

박도희	안녕!! 10년 후 도희야. 네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나는 기뻐. 주부가 될 수 있어. 안녕.
방시현	안녕? 난 10년 전 너야. 지금쯤 넌 22살이겠지? 할 말은 별로 없고 꽃길만 걸어줘. 맞다. 방탄도 열심히 파고! 그럼 안녕!
오수현	난 지금 6학년 이지만 네가 보는 날은 아마도 23살 정도 되겠지? 나의 꿈을 꼭 이루고 취미를 가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육사는 힘들지만 꼭 힘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절대 힘들다고 포기하지마! 그럼 안녕!
오은별	안녕, 잘 지내니? 난 잘 지내고 있어.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중에 또 편지쓸게. 안녕!
우영제	안녕 영제야! 난 13상의 영제야! 오늘은 2017년 12월 26일!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ㅠ.ㅠ 넌 어때? 23살이겠네. 남자친구는 있어? 대학교는 갔어? 행복해?? 열심히 살아!! 행복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효도해! 그럼 안녕~♡
이정옥	너는 23살에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만 너가 23살에 행복하게 살거야~
장지유	어릴 때의 꿈을 지금 이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 항상 행복해!
정서현	안녕. 넌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니? 나는 네가 네 꿈을 이뤄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래.
천예은	잘 지내? 지금은 12월 26일이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금 독감이 유행이래. 나도 조심하고 있는데 민주하고 시현이는 열이 38도까지 갔대. 영제는 기침을 엄청 많이 했대. 내가 24일이 생일이잖아. 23일날 생파를 했는데 슬펐어. 이유는 시현이는 독감초기라 못오고 정옥이는 2시에 학원가고 민주는 3시에 아빠가 불러서 집에 갔어. 처음한 생파였는데 최악의 생파인 것 같아... 잘지내...
한유진	안녕? 너는 23살인 나의 삶을 살고 있겠구나. 지금쯤이면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있고, 나의 꿈을 이루어서 PD가 됐을 수도 있겠다. 지금의 나는 철이 들지 않았지만 10년 후 나는 철이 들었겠지. 10년 후에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싶다. 10년 후에 보자.
황민주	안녕? 민주야.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 네가 이걸 보면 23살이겠네. 너는 그때 꼭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꿈도 이루었을거야. 항상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있을거라고 믿어!

책을 읽고...

[김진국]
책의 제목은 왕자와 거지.
먼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설명하겠다. 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책의 제목이 흥미롭고, 완전 반대의 신분 두 개가 책의 제목이 되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읽게 되었다.
'왕자와 거지'의 줄거리는 도플겡어에 왕자와 거지가 만나게 되는데 왕자가 거지의 이야기를 들으므로서 거지의 삶의 흥미를 가지고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거지의 삶을 잠깐 살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다. 후반 부분에는 왕자와 거지가 각각 성장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 '왕자와 거지'를 읽어 보고 느낀점은 나도 왕자와 거지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재밌기도 새롭기도 할 것 같다. 그리고 내 옷에 대해 소중함도 깨달았다.

[윤영진]
내가 이번 독후감에 쓸 책의 제목은 "무기 팔지 마세요!"이다.
이 책은 처음에 한 남자 아이들이 한 여자 아이에게 비비탄 총으로 쏜다 여자 아이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 학교에서도 하교를 한 후에도 남자 아이들이 계속 그 여자 아이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 중의 지도자의 어머니를 뵈러 갔다. 하지만 여자 아이는 어머니를 설득을 했다 그래서 총을 뺏고 혼을 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남자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 몰래 뒷 따라갔다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들키고 만다 그리고 점점 여자 아이는 친구와 함께 총은 위험하다라며 공지와 비비탄 총 수거 운동에 힘을 실었다 처음에 남자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점점 그 운동에 참여하여 총을 수거 했다 그래서 이책은 평화를 주도 하자는 책인것 같다 나도 이 책을 보고 난뒤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무기, 흉기가 될 수가 있다고 명심한것 같다.

[박준기]
제목:백조왕자 / 원작:안데르센
내가 이 책을 일게 된 계기는 이책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서이다. 이 책의 내용은 옛날 11명의 왕자와 막내인 엘리자 공주가 있엇습니다 임금님인 아버지는 성격이 나쁜 아내와 결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11명의 왕자들을 백조로 변신시킨 후 궁정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자 공주는 호두 기름을 얼굴에 묻여 얼굴을 검게 칠한 후 머리카락을 엉키게 했습니다. 공주는 백조들을 원래의 왕자들로 바뀌게 할려고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쇄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들 동안엔 말을 절대로 하지말라고 말해습니다. 엘리자 공주가 옷을 만드는 동안 숨어 지내던 동굴에서 다른 마을의왕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공주를 마구 끌고가 결혼할려 햇습니다. 그러자 쇠기풀이 떨어저 찾으로 무덤으로 가는대 왕자가 공주가 무덤으로 간다는 소문을듣고 공주를 뒤따라갑니다 쇄기풀 뜯으러 가는 것을 무덤으로 가 공주가 마녀라는 것을 잘못 알고 왕자는 공주를 화형 시키기로 합니다. 공주는 내

일 까지 쇄기풀을옷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굴 공주는 내일까지 아슬하게 옷을 만들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책은 여러가지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주원]
내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이다. 이 책은 보도 섀퍼가 글을 짓고 원유미씨가 그림을 그렸고 김준광님이 옮겼다. 이 책으로 말하자면 외숙모가 우리집에 놀러왔을 때 읽으라고 사온책이다 .
이 책의 주인공이 어렸을 적 개가 너무 가지고 싶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처가 나고 힘이 업는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하였다 그 강아지를 고쳐주고 둘을 친구가 되었다 그러게 산책 시키고 지내다가 어느날 개 주인이 나타났다 개 주인은 사고가 당했었는데 그 차에 이 강아지를 대리고 타고있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후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햇다 그런다음에는 주인아저씨가 아파가지고 강아지를 조금만 봐주라고햇다 그래서 봐줬다. 그리고 그 강아지랑 산책을 나갔다 그 동내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 부자들이랑 친해지고 주식을 배우고 같이 주식을 사고 팔며 하면서 부자가돼는것이다

[천예은]
제목: 중학교 1학년 공부습관 평생진로 결정한다.
글쓴이: 와이즈멘토
이 책을 읽어보니 시간은 꽤 많이 들었지만 내가 중학교 가서 어떻하면 좋은지 중학교 공부는 기초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공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책은 공부습관을 어떻게 하면 등수가 높아지는지도 나와있다. 만약에 나도 이 책을 통에 공부습관과 스케줄을 관리 할 수 있을까? 내가 중학교를 올라가서 이 책이 도움이 제발 될 수 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책인 것 같다.

[방시현]
제목:곱슬머리 내 짝꿍
곱슬머리 내 짝꿍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의 내용은 민성이가 자신의 짝인 소미를 뚱뚱하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이야기다. 책상에 선을 불공평하게 그어 소미가 넘어 올때 마다 허벅지를 꼬집었고 괴롭혔다. 그러다 민성이는 윤지라는 아이가 목욕탕에서 소미의 왼쪽 허벅지에 멍이 가득있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민성이는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체육 시간에 짝과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를 잘 못하는 소미 때문에 꼴찌를 한 민성이는 다시 소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날 소미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민성이는 점점 걱정이 됐다. 그래서 민성이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말했고 소미의 문병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문병을 가서 소미에게 사과를 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친구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것과 차별하면 안되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우영제]

제목: 마지막 잎새 / 원작: 오 헨리 / 글: 홍인영 / 그림: 조미애
-베어먼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우영제라고 해요. 마지막 잎새를 읽고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우선 존시를 살려주신건 정말 대단해요!! 존시는 정말 나을 가능성이라곤 열에 하나였어요. 살아가고 싶은 의지도 없었고요... 존시는 힘없이 벽돌집의 담벼락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을 새고 있었어요.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거라 생각하며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실패한 예술가이었지요? 40년 동안 걸작을 만들겠다 큰소리쳤지만 쓸 만한 작품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추운 밤 동안 존시를 위해 그려주신 잎새 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존시에겐 생명의 은인이실꺼에요. 존시는 그 덕분에 살아갈 의지를 되찾고 페렴이 다 나았어요. 비록 할아버지께선 페렴에 걸려 돌아가셨지만요... 존경스러워요. 저같으면 제 몸 관리하기도 바빠서 남을 도울 생각이라곤 하나도 못했을거 같아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니 정말로 대단하세요!! 실패한 예술가이었지만 이젠 성공한 예술가에요! 이 마지막 잎새란 글은 정말 유명한 글이 되었어요. 베어먼 할아버지! 존시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베어먼 할아버지처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
- 우영제가 !! -

[오은별]
책 이름: 난 아프지않아
책 줄거리: 우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우현이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 그 능력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데 어느 날 우현이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가 실수로 뜨거운 국물은 우현이 팔에 쏟았다. 그런데 우현이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우현이가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걸 알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우현이를 때렸다. 우현이는 맞을 때 웃는 얼굴이었고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는 날 우현이는 친구들 대신 주사를 맞게 되었다. 합쳐서 4번을 맞은 우현이는 결국 쓰러지게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우현이가 아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친구를 장난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한유진]
제목:법은 왜 필요할까요?
지은이:글 정수현/그림 이주희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은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은 누가 만드는지 등 법에 관한것들이 들어있다. 법에 관한 전문용어가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근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다. 이 책에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여럿이 함께 살다보면 분명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법은 성문법이다. 이렇게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장준]
안중근 동양 평화를 꿈꾼 의병장
안중근의 삶에 대해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7살이 되던 해 1885년에 가족과 함께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사를 갔다.
1894년 16살에 아내인 김아려와 결혼했다. 2년 후 18살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905년 27세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청나라로 건너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르 각이라는 신부를 만난 뒤, 마음을 바꿔 우리나라에 돌아온다. 그리고 안중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1년 후 가족들과 함께 평안남도 진남포로 떠나고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운 뒤 교육 사업에 힘을 쏟는다.
1907년 평안도에서 국채 보상 운동을 이끌다. 네달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 독립 운동을 하려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30세 ~ 32세 연해주에서 의병을 모으고 자신이 의병장이 되어 일본군과 싸우다 결국 패배하고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간다. 1909년 동지 11명과 손가락을 자른 뒤, 그 피로 '대한독립'을 쓰고, 독립 운동에 힘을 쓸 것을 다짐.
1909년 10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아 죽임. 19010년 32살이 되던 해에 관동 도독부 고등 법원에서 6번에 걸치는 재판을 받고,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는다. 자서전 안응칠 역사를 완성하고 동양 평화론을 쓰기 시작하다. (안응칠 역사란? 안중근의 어릴 적 이름으로 부모님이 직접 지어 준 이름이다. 하지만 사냥과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 부모님이 중근이라는 '무거운 뿌리'라는 뜻으로 안중근이 차분해지고 신중해지라고 다시 붙여 준 것이다.)
3월 26일 형이 집행되어 세상을 떠난다.
느낀 점: 안중근 의사님의 대한 것과 삶을 알아보니 정말로 존경스럽다.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목숨까지 바친 안중근 의사님의 애국심을 정말로 잘 느꼈다. 나도 이 안중근 의사님처럼 대단한 애국자가 되고싶다

[정서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꽃. 하늘말나리는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바우라는 남자아이가 소희라는 여자아이에게 작별 선물로 시를 써주는데, 그 때 하늘말나리라는 꽃이 소희라는 아이를 닮았다고 하는 장면에서 지어진 제목인 것 같다. 소희가 당당한 성격이란 걸 비유한 것도 하늘말나리는 많은 나리꽃들 중에 하늘을 당당하게 보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고 말이다. 이 책에서는 이혼했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과 재혼한 부모님 등 부모님의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쓰신 이금이 작가님께서 주변에서 부모님의 재혼을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작가님께서 쓰신 문장이 너무 세세하기 때문이다. 마치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결손 가정도 많은 이러한 현

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편견 없이 하늘말나리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하늘말나리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다가 다른 식물과 부딪히면 잠깐 옆으로 피한 후 다시 하늘로 쭉쭉 자라는 성질을 가진 것과 같이 고통과 상처를 통해 더욱 성장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이 '너도 하늘말나리야' 라는 책을 소개해주고, 같이 느낀 점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김달훈]
내가 이번에 일은 책은 고흐이다. 고흐는 태양의 화가로 죽기 전에는 인정 받지 못하였지만 죽어서는 고흐가 그린 그림이 인정받게 돼며 큰돈을 주고 받으며 팔고 샀다.
내가 이책을 읽게 된 이유는 방학하기 전에 고흐에 대하여 배워서 고흐에 괸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돼었다
고흐는 어려서부터 공부와 그림을 좋아하였다 그렇지만 공부를 시작한지 4년만에 집으료 돌아왔다. 그이유는 집안 형편이 되지 않아 학비를 대여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흐는 다른 일거리를 찾고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었습니다. 그렇게 일한지 4년이 흐르고 고흐는 런던에 있는 구필화랑이라는 보내지게 돼었습니다.
고흐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이유는 전에 일하던곳 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일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마다 그림을 그리게 돼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또한 많이 읽게 돼었습니다.그리고 얼마뒤 동생으로 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동생 테오가 부뤼셀 구필화랑에서 일하게 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고흐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돼었기 때문입니다. 오느날 고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지만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게다가 고흐는 구필화랑에서 쫓겨나기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많은 일거리를 해 보았지만 딱히 할 만한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흐는 전도사가 되어 탄광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전도사는 점잖지 않은 직업임을 알고 화가의 길을 갔습니다. 고흐는 딱히 그릴 것이 없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풍경등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흐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은 목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영양실조로 이빨들이 줄줄이 빠져나가 음식은 씹지 못해 몸이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고흐는 정실질환을 앓고 있을 때 그린그림은 대부분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없었을 땐 밝고 활기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고흐는 37세의 나이로 숨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흐의 그림을 인정받게 됩니다.
읽고 난 뒤에 느낀점 : 고흐가 살아 있었을 땐 인정 받지 못한게 안타까웠고 죽어서 인정 받고는 고흐가 억울 했을 거 같다고 생각한다.

[강동균]
책 제목 : 야성의 부름
우선 이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의 이야기는 어떠한 판사의 벅이라는 개가 판사의

집의 정원사의 조수가 금광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썰매를 끄는 개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벅은 야생에서의 기술들이 익혀지며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악마 개라고 불리면서 끝을 맺는다.
이 책에서 느낀 점은 이 벅이라는 개가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부러웠다는 것이다. 이 능력이 뛰어난 만큼 똑똑하기도 하여서 기존의 다른 썰매 개들을 잘 따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벅은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자신의 주인이 나쁜 사람인 것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책이지만 '개가 그런 것 까지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개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이 벅이라는 개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한 동물이나 사람들도 있었다. 난 이런 것을 많이 보지 못하였다. 주위에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박도희]
제목 :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이 책은 제제라는 5살 꼬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다. 제제네 집은 무척 가난해서 남들이 다하는 잔치를 벌이는 성탄절에도 선물을 못 받을 정도이다.
5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말썽쟁이 심지어는 악마라고 까지 말하곤 했지만 그의 행동은 세상울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제제는 신경쓰지 않았다.
어린 제제는 자신이 붙여준 밍기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라임오렌지 마무의 친구가 되어 대화를 나눈다.
그러던 어느날 거리에서 노래부르는 사람을 만나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포르투칼 사람인 동네 아저씨 마누엘 발라다라스를 만나 우정을 키우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제제는 그를 자신의 애칭인 뽀르뚜까 부르게 된다.
제제는 어린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제제는 뽀르뚜까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
뽀르뚜까의 사랑으로 즐겁게 생활하던 제제는 사람이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이 있다는걸 알게 된다.
그가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고 여겼던 뽀르뚜까가 열차 사고로 죽은 것이다. 이 충격으로 제제는 오랫동안 절망을 느끼면 앓게 되는데 잃고 난 뒤 제제는 어린 꼬마에서 소년으로 자라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내 생각: 제제는 철부지고 말썽쟁이이지만 착한것 같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잼이 빠진 식빵 같은 것 같다.

[황민주]
제목: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의 소원을 들어 줄게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을 등장인물은 늘찬이(백혈병 걸린 아이), 늘찬이(여동생), 엄마, 아빠 등이 나온다.
이 책의 줄거리는 늘찬이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다. 큰 주사기가 늘찬 이의 엉덩이의 뼈를 뚫고 나가자 늘찬이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는 눈물 콧물로 얼굴은 엉망이 될 정도로 울었다. 늘찬이는 다행히 살 수 있다. 하지만 늘찬이의 골

수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찬이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늘찬이의 소원은 휴먼로이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봉사자들이 늘찬이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 휴먼로이드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늘봄이는 질투가 났다.
늘봄이는 자기 심정을 봉사자한테 말하였다. 하지만 봉사자들은 늘찬이 같은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했다.
늘봄이는 공주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아빠가 봉사자들에게 늘봄이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많은 부탁을 하였다. 정미경이라는 봉사자가 늘봄이를 한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다.
늘봄이는 깜깜하여 무서웠다. 갑자기 불이 켜지자 봉사자들이 늘봄이는 공주처럼 대하였다. 하지만 늘봄이는 우울하였다. 늘봄이의 진짜 소원은 늘찬이가 낫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일 뒤, 아빠가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에게 깜짝 놀라게 하려고 병원에 갔다. 병실에 있는 엄마가 우울해 보였다. 늘찬이가 고개를 옆으로 수그린 채 누워 있었다. 다행히 골수가 맞는 사람을 찾았다. 덕분에 늘찬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백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 같다고 생각이 든다.

[이서준]
책먹는 여우
처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바로 나는 동물을 좋이하는 편이면서도 제목이 참 이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두깨도 적딩해서 다 읽겠다 다짐하고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줄거리로 요약해보면 여우는 책을 먹는데 돈이 떨어져 책을 살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몰래 책을 먹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 책을 쓰고 그리고 먹다가 감옥에서 풀려나 훌륭한 작가가 되는 내용이다.
책을 보다보면 대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변이 종이여서 좀 웃기고 신기하였다. 그리고 책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래 도서관 가서 책을 몰래 먹는 여우가 대단한것 같았다. 그리고 여우가 책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책을 잘쓰는 작가가 되었는데 작가가 재미있을 것 같았고 작가가 되고도 싶었다. 나중에 여우처럼 책을 잘쓰고 싶다. 이 책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도 궁금하다.

웃음이 가득한 6학년 5반 이야기

담임 주한솔 선생님

우리반을 소개합니다



이 름	나의 꿈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강희석	의사	**강**한 희석이 **희**곡으로 의야기를
김남혁	장관	**김**치는 **남**쪽에서 만든게 **혁**신적
김성빈	경찰	**김**먹다가 **성**실히 생각중 **빈**사사태 빠짐
류동현	프로게이머	**류**동현은 **동**중을 가기 싫은데 **현**실은 가야한다
박준섭	요리사	**박**을 자르다가 힘들어서 **준**비된 물을 **섭**취했다
박현준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박**현준은 **현**대의 최고의 물건을 **준**비중이다
신원형	작가	**신**원형은 **원**빈에게 **형**이라 부른다
오준서	공무원(경찰, 공군)	**오**레오는 **준**나게 맛있어 **서** 마트에서 안 판다
우재윤	파일럿	**우**비를 입었다 **재**윤이가 그래서 **윤**기가 난다
이규호	검사	**이**씨 가문에 **규**호는 **호**구다
임진우	컴퓨터수리공	**임**진우는 **진**짜로 **우**리반 남자중에서 가장 약하다
홍성언	UN사무총장	**홍**성언은 **성**스럽고 우아하고 유니크하고 귀엽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 **언**빌러버블!
김규리	요리사	**김**규리는 **규**카츠를 좋아한다 **리**본도 좋아한다
김아름	미용사	**김**아름은 **아**주 **름(음)**식을 잘 먹는다
김영	의사	**김**밥을 먹으면서 **영**화를 본다
김정연	푸드코디네이터	**김**밥을 싸고 **정**연이네 가족은 **연**꽃을 보러 소풍갔다
나영수	소설가/공무원	**나**는 **영**어랑 **수**학을 하였다
도예솔	여행가	**도**예솔은 **예**솔이는 **솔**이는
윤서현	작가	**윤**서현은 **서**울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이다연	선생님	**이**빨빠진 **다**연이는 **연**가지고 친구랑 놀았다
이수진	모델	**이**수진은 **수**많은 화장품을 **진**지하게 고른다
조수은	가수	**조**개를 한 아이가 **수**차례 보고 주웠다가 **은**하수를 닮은 조개를 집었다
조건희	소방관	**조**건희는 **건**희는 **희**곡을 썼다

감동이 있는 글

딸기

초록색 모자를 쓰고
주근깨가 많은

딸기

김아름

초록색의 아이로
태어나서
빨간색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딸기

우리 마음에
미소를 띄우네

마지막 남은 딸기
서로 먹겠다고
동생과 나는
오늘도 싸운다

<이야기 바꿔 쓰기>

제목: 짜증나는 날

도예솔

학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같은반 친구 민지가 말을 걸었다. “태은아 지금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난 떡볶이를 먹으러 같이 가고 싶었지만 바로 오라는 엄마의 말에 안된다고 하였다. 민지는 아쉽다며 다음에 먹자고 하였다. 민지와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용은 ‘엄마 오늘 일찍 가려고 했는데 일찍 못 갈 것 같아. 열시쯤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밥 차려먹어. 미안해.’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민지랑 같이 갈걸... 난 밥 차려먹기도 귀찮아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다.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해봤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하다가 그 마저도 따분해서 그만 두었다. 거실에 나와 TV를 켜니 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보다가 시계를 보니 11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까지 엄마는 오지 않았다. 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 엄마목소리에 눈을 떠 보니 엄마가 아빠랑 전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내 성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엄마는 내 성적에 대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난 말할 기운이 없어 그냥 누워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

김성빈

일어나는 시각은 7시 50분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을 확인하면서 걸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였다. 1교시는 영어를 하였다.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를 잃어버렸다. 카드게임을 하는데 뒤쪽이 찢어져 있어서 나에겐 카드가 없었다. 그리고 우린 바나나 그림이라는 것을 하였다. 우리반은 1등반과 1개 차이로 2등이어서 아쉬웠다. 3교시에는 체육이었는데 마지막 시간이었고 피구를 하였다. 학교가 끝나고 태권도를 갔다오니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다. 와서 제사를 시작하고 밥을 먹었다.

별

신원형

넌 지금 어느 별에 있니
난 아직도 이 별에 있어

하늘에 나를 태워보면
너를 볼수있을까

혹시 너도 나를 찾고 서 있는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만 있어

너의 밤하늘속에 내가 있다면

그 수 많은 별들 중에
한점이라도 채워지면
그걸로 좋아 이별이 된대도

딸기 꼭지

나영수

밥을 먹다가 가려는 순간,
딸기 꼭지 3개가
내 식판에
투척이 되었다.

나는 멀뚱멀뚱
내 식판을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 내 식판엔
딸기꼭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눈사람

조수은

오늘도 수북수북 눈이 내립니다
삼삼오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갑니다

아이들은 장갑을 끼고 눈을 던지며 놉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놓니다

들어와, 엄마들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금만요, 라며 빠르게 눈사람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이 눈사람이 우리를 지켜줄거야!

피렌체의 소년서기를 읽고

이수진

줄리오는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밤마다 봉투에 주소를 쓰는 일을 한다. 날마다 잠을 설치다 보니 공부도 못하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줄리오가 게을러 졌다고 생각하고 꾸중을 하신다. 줄리오는 아버지께 오해를 받는 것이 슬펐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줄리오의 마음을 알게 된 아버지는 줄리오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줄리오처럼 가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 애쓰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자.

하얀 눈

김영

하얀 눈이 쌓이며
희석은 눈싸움을 한다

누워서 천사를 만든다

강아지는 뛰어놀고
부드러운 눈을
희석은 던지고 나는 눈사람을 만든다

좋아하는 것들

윤서현

향기가 나는 것들, 별 그리고 달. 은하수

와 비 오는 날, 책 읽기.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맞기.
꽃을 좋아하며 탄산음료와 구름, 고양이, 고슴도치나 돌고래.
음악과 퍼즐을 좋아하고 젤리와 다양한 색깔 과일, 예쁜 글씨체, 사탕과 단 것 매운 것 신 것 모두 좋아한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비현실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몇 번이고 올라오는 감정들을 삼키고 나면 목구멍이 까슬해진다.
나는 그 느낌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 더 있을까.

<이야기 바꿔 쓰기>

제목: 자전거 훔친 날

김규리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갖고 싶던 자전거를 마트 앞에서 보았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훔쳤다. 집으로 돌아오니 후회한다. '어쩌지, 다시 갖다놀까?' 심장이 빨리 뛴다. 걱정을 한 채 잠이 들고, 다음날, 다시 마트 앞으로 갔을 땐 그 아이가 기쁜 표정으로 오다가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다시 돌려주고 사과하기로 했다. 다시 다음날, 자전거를 가지고 마트 앞으로 갔다. 그 아이가 다시 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쉬고 그 아이에게 갔다. 그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난 자전거를 주며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돌려줘서 고맙다며 사과를 받아줬다. 난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

김정연

눈이 내리고
까르륵 까르륵 소리를 내는 아이들
내 눈속엔
즐거운 아이
예쁜 아이
행복한 아이
멋진 아이
다양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이야기 바꿔 쓰기>

불쌍한 정호

오준서

정호는 학교가 끝나고 걸어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창수가 말을 겁니다. "정호야, 오늘 우리 집에서 놀자." "그래!" 정호는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밥 먹고 바로와." 정호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밥을 다 먹은 정호는 창수네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때 어머니께서 정호를 부릅니다. "정호야. 물통 좀 아버지께 갖다드리렴." 화가 난 정호는 짜증을 부립니다. "싫어요!" "뭐라고 했니?" "싫다고요! 창수네집 가서 놀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무막대기 가져와" 정호는 놀랍니다. "어서!" 화가 나신 어머니가 소리치십니다. 그제서야 정호가 움직입니다. "짝!" 우렁찬 소리가 집안으로 울려 퍼집니다. 정호는 울면서 아버지께 갑니다. 물통을 가져다 드리고 창수네 집에 가지만 창수는 이미 가족들과 외식을 갔습니다.

오늘은 되는 일이 없군요.

학교폭력을 하지 말자

이규호

요즈음 학교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나는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벌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성문을 쓰는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반성문을 쓰면 자신의 잘못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벌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시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강희석

요즈음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왜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걸까? 나는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첫째, 환경이 오염된다. 쓰레기를 길바닥에 마구 버리면 환경이 나빠지며 지구가 오염된다. 둘째, 외관상 좋지 않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면 길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보는 것은 우리다. 쓰레기가 널려있는 거리를 보면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족

박준섭

우리가족은 치어리더 같다
내가 교과서라는 경기장에서
공부하다 힘들어 할 때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우리가족

수학

홍성언

수학은 월요일이다.
이 시간만은 오지않길
기다렸지만
오고야 말았다.

수학은 월요일처럼
가장 힘든 시간이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다.

연필을 잡는 내 손은
좋아하는 아이를 만난것처럼
떨린다

드디어 수학시간이 끝났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졸업

이다연

곧 있으면 졸업이다
초등학생을 마치고

중학생을 시작한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로 들어간다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새로운 중학교 친구들을 만난다

졸업을 하려니
하기 싫어진다

옵치 게임을 한 날

류동현

나하고 현준이 그리고 유근이랑 옵치 경쟁을 했다. 한조, 위도, 겐지를 썼다. 처음에는 현준이가 힐러를 내가 현준이고보고 힐러하라고 했다. 근데 현준이가 싫다고 위도한다고 해서 현준이한테 자리야하라고 해서 현준이가 자리야했다. 이 판은 이기고 우리끼리 1대1 했다. 현준이랑 유근이랑 위 도전했는데 현준이가 이겼다. 다음은 현준이가 한조하고 나도 한조했다. 내가 이겼다.

고기

박현준

맛있는 고기 쌈싸먹기
맛있는 고기 찌개로 먹지
맛있는 고기 구워먹지
맛있는 고기 또 먹고싶지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읽고

김남혁

필리어 포그라는 신사를 세계일주를 80일만에 한다고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하인 파스파르투랑 같이 세계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포그씨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도 80일동안 세계일주를 했다는게 대단했다. 만약에 내가 80일동안 세계일주를 한다고 해도 나는 못했을 것인데 포그씨가 세계일주를 성공했다는게 너무 신기하고 출발지점으로 도착했을 때 늦은 줄 알고 생각했다가 하루 더 빨리온 것을 보고 좀 웃겼다. 왜냐하면 세계일주를 할 때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줄어드는데 포그씨가 이것을 몰랐다는게 포그씨가 좀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포그씨처럼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

함께라면

임진우

사람은
하나보단 둘
둘보다 셋
혼자라면 외롭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친구를 사귀면
외롭지 않고
좋다

6학년 6반 학급 문집



친구

조건희

많을수록 좋은 친구
많을수록 싸우는 친구
많을수록 도움 받는 친구

친구가 없으면 없는 즐거움
친구가 없으면 없는 싸움
친구가 없으면 없는 도움

친구가 많은 것은
행복이 많은 것

여자농구 개막식에 다녀와서

우재윤

오늘 청주에 연고지를 둔 KB스타즈 여자 프로 농구팀 개막식에 갔다왔다. 농구장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무척 많았다. 농구장에 한 1분뒤에 들어갔다.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을 보다가 경기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이승훈 시장님, KB스타즈 구단주님이 오셔서 연설을 한 뒤 이승훈 시장님께서 시구를 하셨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시구를 하러 온 남주혁이 시장님께서 실패하신 공을 받아서 레이업으로 시구를 했지만 실패였다. 시구를 다 마치고 정식경기가 시작되었다. 시구를 다 마치고 정식경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상대는 KDB생명이었다. 처음에 KB의 실수가 많았지만 나중에 실수를 덜하게 되면서 10점이 넘는 점수차를 내서 이겼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마마무의 공연이 있었다. 마마무 공연까지 보니 재미있었다. 농구장에 3시에 가서 집에 9시에 왔다. 피곤하지만 재미있었던 날이다.

냥 엄마, 아빠는 처음 보는 거라고 하셨다.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고 게다가 동생이 계속 놀렸다.
나도 질 수 없으니깐 반격~~ 재미있고 새로웠다.
자전거 잃어버린 아들

노연지

활짝

박해나

개나리는 꽃잎을 활짝

덩굴손은 새잎을 활짝

새들은 날개를 활짝

아이들은 웃음꽃을 활짝

봄이 왔어요!

온 세상이 기뻐 소리칩니다.

추억사건

김아영

오늘은 동생이랑 오랜만에 추억의 사진을 펴보았다.
정말 기대되었다. 동생 어릴 적은 정말 귀여웠다. 하지만 지금은...못생겼다.(어릴 때보다) 나는 어릴 땐 진짜 귀여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나도 못생겼다고 양심적으로 생각했다.
어릴 때를 보니깐 새로웠다. 하지만 나의 흑역사 사진이 공개되었다. 오래전거라 그

눈 사람

봉진성

겨울이 만드는 눈사람
눈사람은 꽃 선인 같다.

눈사람이 우리에게 행운을 준다면
행운의 눈사람인가?

겨울

한수진

눈이 펑펑
코는 쓰읍
콧물이 얼고 콧물이 내려오고
마치 눈과 비의 조합 = 우박

현철이의 자전거

김민경

일주일 전 현철이가 학교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묶어 놨다가 잃어버렸다. 내 것도 그 옆에 나란히 있었다. 우리는 현철이의 자전거가 없어지자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했다. 현철이 자전거가 새 것이어서 그랬나보다. 내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철이 것에 비하면 초라했다. 하지만 우리는 옆 집 살며 같이 자전거 타고 학교도가고 놀러도 갔다. 그런 자전거가 없어졌다. 현철이는 풀이 죽어있었다. 나는 그런 현철이가 불쌍했다. 늘 활기차던 녀석의 저런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빨리 현철이의 자전거가 돌아와서 현철이의 생기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눈사람

최하형

대설이 오는 어느 겨울날
눈사람을 만들었다.

엄마 눈사람, 아빠 눈사람, 아기 눈사람
눈사람 가족이 되었다.

언제 대설이 왔냐는 듯 햇빛이 쨍쨍
“안녕 눈사람~“

우리엄마

김탁일

우리엄마는 멋있다
슈퍼맨처럼

우리 엄마는 무섭다
저승사자처럼

우리엄마는 착하다
천사처럼

봄이 왔어요

표채원

이번 주가 벚꽃이 절정이라고 해서 무심천을 벚꽃 구경하러 갔다.
매년 13년 동안 이맘때쯤 무심천으로 벚꽃구경을 갔는데 매년 봐도 질리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덥고 미세먼지가 잔뜩 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했다. 하지만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치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벚꽃이 떨어질 때 벚꽃 잎을 잡아 보기도 했었는데 작년 수학여행 때 벚꽃 잎을 잡던 게 생각났다. 벚꽃은 무슨 일이 있든 간ㅇ네 봄을 알리러 오는 수단 중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내

년 이맘때에도 오늘 한 벚꽃구경을 떠올리며 또 다시 벚꽃 구경을 해야겠다.

겨울

안현정

선선한 가을이 가고
춥디추운 겨울이 왔네

춥디추운 바람이 쌩쌩 불고
어느새 하늘에서 보슬한 눈이 하나씩
떨어지네

하얀 눈이 톡톡 떨어진다
어느새 눈이 쌓였네

뽀슬뽀슬 눈 위를 걸으며
올 겨울 지나가네

눈꽃

이지근

눈이 많이 오네
솜같이 펑펑 온다

눈꽃은 차갑지만
눈꽃은 이쁘네

눈꽃을 뭉쳐
눈뭉치가 되네

더 많이 뭉쳐
눈사람이 되었다.

인형

정창규

인형은 부끄러운가?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혹시 밤에 몰래 움직이진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인형을
무서워할까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을까?

겨울

정민혁

눈이 펑펑 내린다
눈으로 마을이 덮였다
마치 이불처럼

친구가 찾아왔다
같이 눈싸움도하고 눈사람도 만들었다
겨울은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다.

눈사람

임인희

하얀 눈이 가득 쌓이 듯이
내 마음에도 기대가 쌓인다

눈을 굴리며 눈사람을 만든다
내가 공부를 할때 머리 굴리듯이

오늘 만든 눈사람 내친구
녹지마라

겨울

노현우

오늘도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진다
가는 길마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보인다

날마다 더 옷을 입지만
바람은 계속 온몸을 얼린다
내일이라도 바람에게
살살 불라고 부탁해야겠다.

눈사람

이수민

어젯밤 동안 우리집 마당에 소복히 쌓인 눈
동글동글 둥글 둥글 눈을 뭉치다 보니
어느새 커다란 공들이 굴러다닌다

커다랗고 멋있는 우리 아빠를 닮은 눈사람
예쁘고 상냥한 우리 엄마를 닮은 눈사람
똑똑하고 재미있는 우리 언니를 닮은 눈사람까지

우리집 마당에 사랑 가득 눈사람 가족이 생겼다.

파란 하늘

주민수

하늘은 커다란 바다이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기 때문이다

바다엔 파도가 있듯이
하늘에도 그림이 있다
바다와 하늘은 닮은 점이 참 많다.

겨울

김유빈

겨울은 하얀 솜사탕 같다
푹신푹신한 겨울

난 겨울이 좋다
맛있는 겨울

겨울

김우준

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누가 하늘에서 차가운 솜을 뿌리듯이 내린다

마을이 차가운 솜으로 뒤덮였다
지붕 위에 지붕이 또 생겼다
눈은 재밌는 것 같다.

동생

조유희

내동생
내동생은 장난꾸러기
시간만 나면 어지럽힌다.

내동생 내동생은 귀여운 꼬마
틈만 나면 애교를 부리지

학교

심유신

오늘은 새학기
또 다른 친구를 만난다
설렘반 두려움 반으로
오늘도 학교를 간다